

기획



인권도시 광주 이렇게 만들자

비정규직 차별없는 행복한 삶 실현 (4)

비정규직 차별, 광역시 중 광주가 가장 심각
노동자 현황·실태조사 형식에 그쳐... 대안 마련 시급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노동자 권익보장 최우선돼야



시간강사 등으로 구성된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지난해 12월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채 생활기본권 보장과 교원권리 쟁취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펼쳤다.

정규직 전환·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서 먼저 실천해야

민주·인권·평화도시의 가치를 내세우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차별은 무엇일까.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이정강)는 의미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인권위식 실태조사 결과이다.

조사결과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 지역 가장 심각한 차별은 비정규직 문제(21%)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16.7%), 장애에 대한 차별(14.3%), 성별에 따른 차별(12.8%) 등의 순서였다.

사실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문제는 하루 이들의 문제가 아니겠으나 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 있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흙대' 받는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로서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등 형태로 일하는 한시적 노동자를 총칭하는 용어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 체결, 기간의 규정이 있는 유기근로계약 체결, 단시간(파트타임)의 노동자가 이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은 노동권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협하는 불안정 고용 상황을 말해주는 현황지표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로 활용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0년 1/4분기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를 보면 전국 임금근로자 1661만

7000명 중 비정규직은 549만8000명으로 33.08%인데, 광주는 48만1000명 중 17만6000명으로,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36.59%를 기록하고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에 이미 광주시청 청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청 등을 상대로 해고철폐와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운동을 벌여왔고 광주시교육청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전남대 비정규직교수회는 ▲고용안정 ▲생활기본권 보장 ▲교원권리 쟁취 등을 외치며 제도 개선과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 금융관련 노조와 금속노조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 사업장 별로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권 도시를 향한 노력

광주시는 비정규직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나섰다. 임시직, 일용직, 호출근로, 시간제 근로, 파견 등으로 나누어 고용상황을 파악하는가 하면 성별분리 통계로 작성해서 성별에 따른 비정규직 해소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와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하여 민간분야로 확산하고 고용현황 정보 제출 기

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의회와 노동자 단체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광주시의회 전주연(통합진보당·비례) 의원은 "광주시가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을 단기실천지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중기과제로 삼고 있으나 정작 비정규직 관련 지역통계조차 부족하고 주먹구구식이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단체 역시 인권지표로서 광주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개선과 대책마련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비정규직센터 등 단체들은 "최근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와 임금·처우개선 비정규직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며 "사람 발림 정책이 아닌 정부 부처간의 협의와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각론을 갖춘 현실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 "인권 리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과제를 제안하는 등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다"며 "인권의 중요 과제로 삼을 수 있는 정당한 노동,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실천력 담보해야

인권 과제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강한 의지와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와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청소·주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화제가 됐다. 사진은 민 구청장이 지난해 여름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는 모습. <광산구청 제공>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의결된 광주시 의회의 '광주시교육청과 산하 공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광주시교육청 비정규직 보호조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에따라 비정규직 직원을 뽑을 때 일었던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게 됐고, 임금과 근무시간 등 일률적으로 적용하

게 돼 갖은 고용 갈등도 풀 수 있게 됐다.

전국 240여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소·주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광산구의 변혁도 눈여겨볼만 하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라는 행안부의 권고사항도 있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서 모범을 보이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주시도 강운태 시장의 지시에 따라 분청과 공사·공단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0여명을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또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기능직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경철 광주시 인권담당관은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것은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인권 차원의 최우선 과제"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조선대 관상학: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방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나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제14기)
※국가공인등급(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2012년 2월 1일(수) ~ 2012년 3월 5일(토)
연수기간: 2012년 2월 28일(화) ~ 2012년 8월 9일(목) 24주 (96시간)
과목명 개강일시 모집인원
3급반 화요일(오전): 2012년 2월 28일(화) 09:30 목요일(오전): 2012년 3월 1일(목) 09:30 24명
2급반 수요일(오후): 2012년 2월 29일(수) 14:00 25명
특급반 수요일(오전): 2012년 2월 29일(수) 09:30 25명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때때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임몰,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광산구 도천동 한남동 장수동
- 면적: 200평~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임대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2칸 매대가 895천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6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인료, 매대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풍정 청고용도로 적합
- 비이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문류청고부지: 정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컨설팅부, 배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다가구주택
- 동구 신수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152평 건평180평
- 감정가599만원 최저가422만원
상가및근린시설
- 남구 월산동 50m대로변(상업지역) 대지330평
- 2층건물400평 감정가 20억 최저가 11억5천만
- 북구 용두동 일반상업3층건물 대지60평 건평132평
- 감정가597만원 최저가4억
단독주택
- 남구 봉선동 2층단독주택 대지56평 건평70평
- 감정가1억980만원 최저가1억2천만
근린주택
- 동구 계림동 4층상가주택 대지53평 건평193평
- 감정가4억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 조정가
- 담양군 남면 구신리 향원당향병병원부근 대지224평
-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 조정가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해수욕장부근 관리지역101평
-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일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960평
-매매금액:45억원
-용자금액:20억원포함
상무지구빌딩매매
-대 지: 257평
-연건평: 900평
-보증금: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10억원
-매매가: 38억
아파트 1층상가매매
-분양면적: 106평
-보3억5천만원/월 650만
-5억5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롯데세네아 1층
-분양면적: 600평
-전용면적: 350평
-대형음식점, 뷔페 적합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어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대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르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었던 플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TEL011-602-2532
(광주은행 신문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